

# 일제시대 사택건축의 배치·평면유형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ite and floor plan type of  
official residenc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aegu province.

윤 재 응\*  
Yoon, Jae woong  
이 철 영\*\*  
Lee, Chul young

---

## Abstract

The official residences were built for japanese official who had lived in Taegu provi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totypes of site and plan patterns for the official residences in Taegu provi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ir site-plans are classified into either individual and row type depending on the building's composition. These each have three and two branch types ass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innercourt and main entrance. The floor plans are classified into the four type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corridor.

---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제시대 대구는 일본 소비상품의 유통기

---

\* 정회원,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울산전문대학교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지로서 뿐만 아니라 배후지에서 생산되는 농  
산물을 집산하기 위한 상업도시로 개발되어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대구에 이주해 온 일본인 수는 1903년 경  
부선 철도부설공사가 착공되고, 1905년 을  
사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계기로 증가하기 시  
작하여 1910년 합방이후 부터는 급격한 증  
가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일인(日人) 거주  
인구의 수적 증가에 따라 1920년대 후반부

터 대구에는 학교·관청·은행 및 각종 산업 시설들이 설립되었고 더불어 이들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사택이 당시 대구의 신주거지인 삼덕동과 동인동 등에 많이 건립되었다.<sup>1)</sup>

이러한 사택은 일본 민간인들에 의해 건립된 주택에 비해 그 수는 적지만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상징성과 의미는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비록 사택들이 각종 관청에 소속된 일본인 관리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주거건축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 식민통치를 원활히하고 일본문화를 주입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내재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택건축에 채용된 건축양식이나 구조는 근대기에 등장한 일식 주택의 제 유형중 가장 규범적이고 발전적인 주거형이 도입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제시대 대구 지역에 건립되었던 사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사택의 배치·평면유형을 분류하여 일식 주거가 지니는 건축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제시대 대구지역에 건립된 사택의 배치유형은 어떠한가?
2. 일제시대 대구지역에 건립된 사택의 평면유형은 어떠한가?
3. 사택의 공간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식 주거에 대한 조사작업은 1980년부터 기초조사가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몇몇 연구결과가 학계에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본 민간인에 의해 건립된 주거나 몇 개의 행정관료용 사택들에 한정되어 왔고 그 내용 또한 물리적 현상의 사실적 기록이나 거주자의 변화에 따른 공간변용이라는 측면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선행된 조사결과를 일차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조사대상 건물의 시간적 범위는 1876년(개항 이후)부터 1945년(해방)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대구직할시내로 한정하여 1996.3~1997.5에 걸쳐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택의 제유형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인근 경북지역 사택들도 일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내용은 먼저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일식 주거의 유형 및 특성, 일제시대 대구의 주택상황과 일식 사택건축의 형성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일식 사택의 배치·평면유형, 공간구성의 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 주거를 현장 답사하여 배치, 평면을 실측조사하고, 거주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원형을 추적하여 도면화 하였다. 조사된 사택의 수는 모두 21호이며 대상가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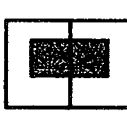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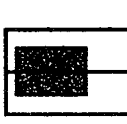
사 택 명	건립연대	소재지	사택수
경북도지사 관사	1920년	대구 동인 2가	1호
대구부윤 관사	1933년	대구 동인 2가	1호
대구지방 전매국장 관사	1924년	대구 동인 2가	1호
대구육군 관사	1930년대	대구 대봉 2가	2호
은행 사택	1930년대	대구 동인 3가	4호
의원 사택	1930년대	대구 동인 3가	4호
삼립정보통학교장 사택	1939년	대구 삼덕 3가	1호
경주철도 관사	1930년대	경주 황오동	6호
경주검찰 관사	1930년대	경주 황오동	1호
총 조사대상 사택수			21호

## 2. 일제시대 사택건축의 배치유형

주택의 배치는 대지의 규모나 형태, 방위와 같은 자연적인 조건과 도로와 접근방식, 전통적인 관습과 규범 등 사회·문화적인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건축물의 배치형식을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은 그 건축물이 지닌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표 2〉 사택의 배치유형과 특성

구분	유형	배치형태	특성	사례
독립형	A형		· 대지의 중앙에 건물을 배치하고 남쪽과 북쪽에 정원을 둔 형태	· 경북도지사 관사(1) · 대구부윤 관사(1)
	B형		· 대지의 북서쪽에 건물을 배치하고 남동측으로 정원을 둔 형태	· 전매국장 관사(1) · 육군관사(2) · 경주검찰 관사(1)
	C형		· 대지의 북측에 건물을 배치하고 남쪽에 정원을 구성한 형태	· 의원사택(4) · 삼립정보통학교장 사택(1)
연립형	D형		· 2호의 주거를 동서로 연결시켜 배치한 형태	· 철도관사(6)
	E형		· 2호의 주거를 남북으로 연결시켜 배치한 형태 · 북측 주거는 채광에 불리함	· 은행 사택(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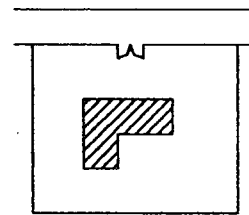
지금까지 전통주택이나 도시형 한옥에 대한 연구에서는 안채와 사랑채, 주요 부속채 등의 동구성 형식에 따라 배치형식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식 사택건축의 경우 건물이 대부분 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구성 형식에 따라 배치유형을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치유형을 먼저 독립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고 건물과 마당(정원)의 구성형식, 도로와 접근방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독립형 사택은 A형, B형, C형의 세가지 유형이, 2호 연립형 사택은 D형, E형의 두가

지 유형이 추출되었다.

### 2.1 A형

A형은 대지의 중앙에 건물을 배치하여 남쪽과 북쪽에 각각 정원을 구성한 유형이다. 즉 동서로 긴 건물을 방형의 대지 중앙에 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외부공간을 기능이 다른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북쪽 도로에 면한 전정(前庭)은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진입공간으로 외부와 실내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전이공간적 성격을 띠며, 건물 남쪽에 형성된 후정(後庭)은 주로 가족의 생활 및 휴식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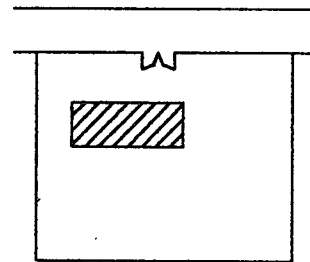
이 유형은 경북도지사 관사나 대구부윤 관사와 같이 넓은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주택에서 나타나며, 평면형태는 A형에 속하는 두 관사 모두 ㄱ字形을 취하고 있다.



(그림 1) A형의 배치형태

### 2.2 B형

B형은 대지의 북서쪽에 건물을 놓고 남동측으로 정원을 배치한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의 외부공간은 A형처럼 건물에 의해 양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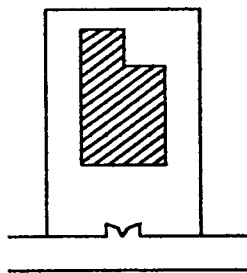
(그림 2) B형의 배치형태

되지 않고 남·동측면의 공간이 연결되어 하나의 영역으로 작용한다. 대지 형상은 대체적으로 남북방향보다 동서방향으로 다소 긴 장방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B형 배치형식 건물을 대지의 북서쪽에 배치함으로써 채광과 일조에 유리한 남동쪽 부분에 넓은 공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외부에서 건물로의 진입방향은 도로의 위치에 따라 두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전매국장 관사와 육군 관사처럼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 대문과 현관을 모두 북쪽에 두었으며, 동쪽에 도로가 있는 경주 검찰관사에서는 대문과 현관을 동쪽에 설치하여 출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일식 사택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입방향은 대지에 접한 도로의 위치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관사의 평면형은 전매국장 관사는 7자형이나 육군관사나 검찰관사는 1자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 2.3 C형

C형은 대지의 북측에 건물을 배치하고 남쪽으로 정원을 구성한 유형으로 의원 사택과 삼립정공립보통학교장 사택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 유형의 대지 형상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며, 대지 규모는 독립형 관사들 중 가장 작은 편이다. 따라서 C형은 이와같은 대지조건으로 인해 건물은 가능한한 대지 북쪽면에 붙여 배치하고 남쪽으로 보다 많이 개방하는 것이 일조나 전망에 유리하기 때문에 취해진 배치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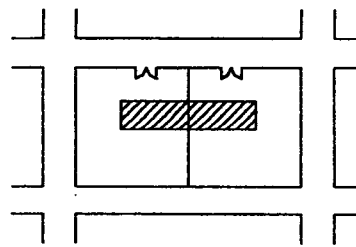


(그림 3) C형의 배치형태

이 유형의 진입방식은 남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주 접근로가 대지 남쪽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대문과 현관을 모두 남면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 2.4 D형

2호 연립형 사택들에서 나타나는 배치형식은 연립방향에 따라 D형과 E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D형은 2호의 주거를 동서로 연립시켜 배치한 형태로, 두 주거는 가운데 놓여진 하나의 벽을 공유하게 된다. 철도관사와 같이 동시에 각 등급별 주택을 여러동 건립할 경우, 건축자재의 절약 및 공기의 단축,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꾀하기 위해 채택되었던 배치 방식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우물이나 창고 등의 시설도 2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쪽 마당 중앙부에 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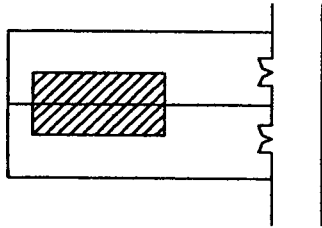
(그림 4) D형의 배치형태

대지는 한 필지에 2호의 주거가 배치됨에 따라 남북방향 보다 동서로 긴 장방형을 취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로의 진입은 관사가 대규모로 건립된 집단관사지의 경우, 접근로가 각 필지 사방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모두 북쪽 도로변에 대문과 현관을 설치하였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1자형을 띄며, 2호 연립주택을 가급적 대지 북쪽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남쪽면에 넓은 마당이 형성된다.

### 2.5 E형

E형은 은행 사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호의 주거를 남북으로 연립시켜 배치한 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배치유형을 가진 주택

은 벽 길이가 짧은 측면 벽을 공유하는 D형과는 달리 긴 배면 벽을 공유하게 되며, 특히 북쪽에 배치된 주택은 채광·통풍에 불리한 환경조건을 갖게 된다.



(그림 5) E형의 배치형태

E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유형에 속한 사택들이 대부분 실을 2열로 구성한 겹집형인 반면 단위공간을 일렬로 배치하고 전면(前面)에 복도를 부가한 반겹집형을 띠는 것이다. 이것은 2호의 주택이 남북으로 연립하여 배치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채광과 환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배치유형별 특성

배치유형	대지형상	도로 위치	대문/현관 위치	평면형태	
독립형	A형	장방형	북	북	1자형
	B형	장방형	북/동	북/동	1자형 1자형
	C형	장방형	남	남	1자형
연립형	D형	장방형	북	북	1자형
	E형	장방형	동	동	1자형

대문과 현관은 대지 동쪽에 나 있는 골목을 향해 설치하였으며 대문과 현관 사이에 형성된 소규모 외부공간이 출입을 위한 전정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고찰해 본 배치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3. 일제시대 사택건축의 평면 유형

한 시대나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의 특성은 주택의 평면구조를 분석해 봄으로써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평면을 통해 각 실의 분화정도, 공간 구성방법 및 위계성, 구조기술 수준 등은 물론 주생활 방식, 주거관념 까지도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사택의 평면유형과 특성

유형	평면 구성 형태	특성	사례
집중형		주거내부에 복도를 설치하지 않고 각 실들을 연결시켜 집약적으로 배치한 형태	·의원사택
중복도형	公私병용형	회의·접객을 위한 公的 영역과 가족생활을 위한 私的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한 형태	·경복도지사 관사 ·대구부윤 관사 ·전매국장관사
	주거전용형	二列로 구성된 실 중앙에 통행을 위해 복도를 설치한 형태	·육군관사 ·철도관사 ·삼립정보통학교 장 사택
편복도형		남쪽 전면이나 북측면에 긴 복도를 배치하여 각 실을 연결시키고 있는 형태	·은행사택 ·경주검찰관사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주거에 대한 배치분석과 더불어 평면적인 공간구성 방식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일제시대 사택건축이 지니는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평면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 기준은 형태학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평면형상에 따라 1자형, 1자형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식 사택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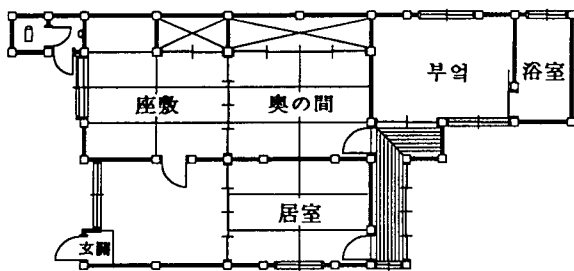
은 배치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면형태가 대부분 一字形이나 ㄱ字形의 범주에 국한되고 있어 이러한 도형적인 분류 방식에 의해서는 공간 구성상의 특성을 제대로 규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대기 일식주택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복도의 유무 및 위치, 용도 등과 같은 기능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택건축의 평면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3.1 집중형

집중형은 주거공간내에 복도를 설치하지 않고 각 실들을 연결시켜 집중적으로 배치한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에서는 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른 실로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변소, 하녀실의 동선문제 등이 발생하고 특히 손님방문시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결점을 안고 있다.

일본에서는 근대화 초기 도시 서민주택의 한 유형으로 등장하였으며 상점병용 주택인 마찌야(町屋)나 연립주택인 나가야(長屋) 등에서 이러한 집중형 평면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림 6) 의원 사택 평면도

조사대상 주택 중 의원사택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주택은 남쪽면에 현관과 거주실들을 전자형(田字形)으로 구성하고 뒷편으로 부엌과 변소 등의 설비공간을 일렬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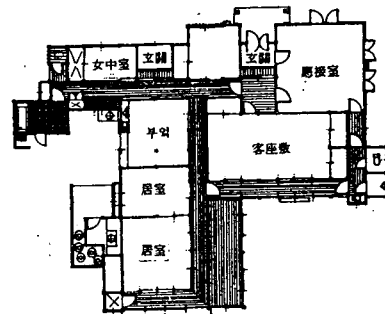
거주실은 모두 다다미 6장 규모의 방 3개

로 구성하였으며 현관 좌측에는 가장(家長)의 기거 및 접객공간으로 사용되는 자시키(座敷)를 두었다. 자시키 공간은 일식주거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격식을 갖춘 공간으로 타실에 비해 높은 위계성을 지닌다. 보통 자시키의 실내에는 도코노마(床の間)와 찌가이다나(違い棚), 불박이 수납장인 오시이레(挿入) 등이 설치된다. 자시키와 연결된 오구노마(奥の間)는 가족들의 주 취침공간이며 식사장소로도 사용된다. 현관 북측 실은 낮동안에는 통로로 쓰이거나 간단한 손님접대 공간으로 사용되며 밤에는 분리취침이 필요할 때 침실로 이용된다.

### 3.2 중복도형

#### 1) 공·사병용형

공·사병용형은 경기도지사 관사나 대구부윤 관사 등에서와 같이 한 건물내에 회의·접객을 위한 공적영역과 가족생활을 위한 사적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하고 주택중앙부에 중복도, 정원쪽에 긴 복도를 설치한 유형이다. 각 영역으로의 출입을 위한 현관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공적영역과 연결되는 외객용(外客用) 현관은 서구식의 포치로 구성되어 격식과 위엄을 나타내었으며, 내부에는



(그림 7) 전매국장 관사 평면도

응접실과 서재, 자시키 등을 배치하였다. 특히 서재와 응접실의 실내는 바닥에는 장마루판, 벽과 천정에는 회벽으로 마감하고 문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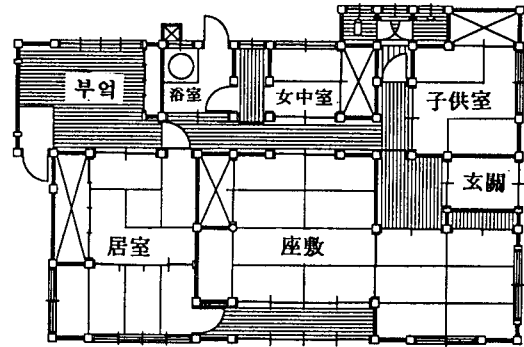
와 코니스에는 양판각의 석고 몰딩으로 장식하여 서구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는 실내를 일본 전통양식으로 꾸민 가족의 거주실이나 하녀방, 부엌 등의 생활 공간을 두었다. 변소는 영역별로 따로 설치하여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공·사영역은 긴 복도를 통해 연결된다.

공·사병용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는 현관이 설치된 북측면이 외부 공간에 대해 폐쇄적인 경향을 띄는 반면 남측면은 매우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북측면은 현관이라고 하는 정해진 출입구를 통해서만 내·외부 공간이 연결되지만 남측면은 전면에 부가된 긴 복도를 매개로 외부 공간인 정원과 자유로이 연결되며 주택 내부의 어느 공간에서도 타 공간의 간섭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주거전용형

이 유형은 가족생활공간만으로 구성하고 중복도를 설치한 형이다. 1920년대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일반인에 의한 생활개선운동이 일고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도시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직장과의 분리와 함께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간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본 주택의 근대화 커다란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중복도형 평면이 등장하게 된다. 이 중복도형 평면은 전술한 집중형 평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소한 도시주택의 생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평면이라 할 수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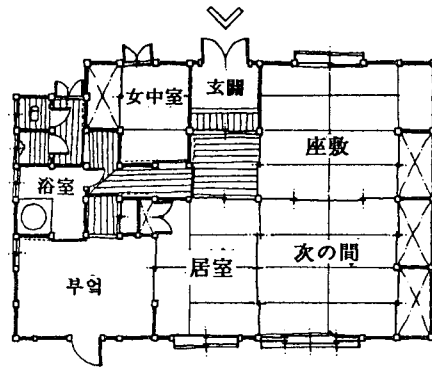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 사택 중 육군 관사와 철도 관사, 삼립정 보통학교장 사택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 평면의 전체적인 공간구성 형태는 각 실들이 가운데 복도를 중심으로 남북 이열(二列)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각 사례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삼립정 보통학교장 사택과 철도 관사 및 육군관사가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삼립정 보통학교장 사택은 가족의 주요 거주실을 남쪽의 주



(그림 8) 삼립정 보통학교장 사택 평면도

요한 위치에 두고 부엌과 욕실, 하녀실 등과 같은 서비스 부분의 공간은 복도 북측에 배치하는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관사와 육군관사는 복도의 북측列에는 현관을 중심으로 쓰즈끼마자시키(續き間座敷), 하녀실, 변소 등의 공간을 배치하였고 가족의 주요 거주실이나 부엌, 욕실 등은 남측列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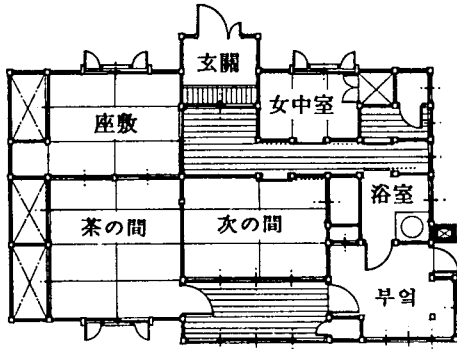


(그림 9) 경주철도 관사 평면도

또한 공간의 개방성 측면에서 보면 대구육군 관사와 삼립정 보통학교장 사택은 남측면에도 복도를 설치하여 정원과 연결하고 있어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계가 철도관사에 비해 더욱 긴밀하고 개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택의 동선체계는 현관 - 복도 - 각 실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구조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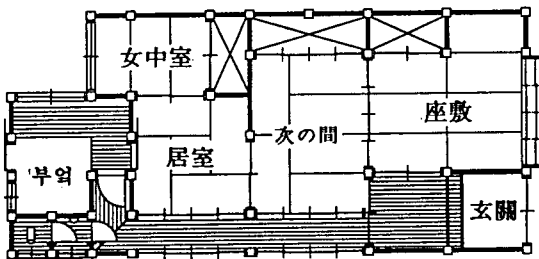
타내며 특히 복도는 공간의 기능을 분화시키거나 독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0) 대구육군 관사 평면도

### 3.3 편복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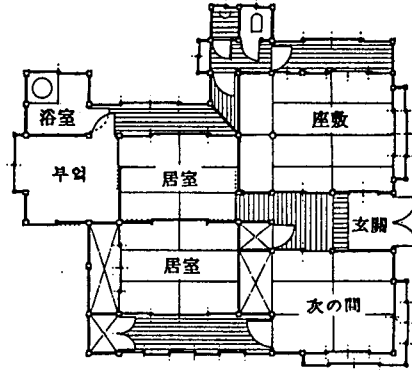
편복도형은 주택의 평면구성시 실내의 각실을 연결하는 긴 복도를 건물의 한 단부(端部)에 배치한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택으로는 은행 사택과 경주검찰 관사가 있다. 물론 경주 검찰 관사는 전체적인 평면형태상 복도가 남북 양측에 놓여 있어 편복도형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남측에 부가된 복도는 각 실간을 연결하는 주 통로로서의 기능 보다는 거주실과 외부공간의 통행을 위한 뒷마루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 편복도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1) 은행 사택 평면도

편복도형은 일반적으로 복도의 위치에 따라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택 남측면에 복도를 두어 각 실을 연결하는 은행 사택과 같은 경우와 검찰 관사처럼 북측면에 배치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사택에서 나타나는 복도와 개실 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



(그림 12) 경주 검찰 관사 평면도

저, 은행 사택은 일렬 구성된 거주실 남측면에 복도를 배치하여 현관과 변소, 부엌, 거주실간의 동선을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복도는 각 실간의 통행 뿐 아니라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기능도 함께 가진다. 평면을 겹집형으로 구성한 검찰 관사에서는 건물의 주 출입구인 현관을 동측면 중앙에 두었으나 복도와 변소는 북측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관과 복도는 분리되어 연속적인 동선체계를 갖지 못하게 되며 변소나 욕실의 이용시 타 실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 4. 일제시대 사택건축의 공간구성상의 특성

일제시대 사택건축의 평면유형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구성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가 겹집화 현상이고 둘째가 설비공간의 집약화, 셋째가 출입구 위치의 차별화 현상이다.

### 4.1 겹집화

조사대상 사택 중 의원사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겹집형 평면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대기에 나타나는 일식 주택의 경향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주택은 전통적으로 겹집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겹집화 현상은 근대적인 일식주택에도 지속되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의 하나로



봐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쪼즈끼마자시키(續き間座敷)와 같은 공간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다. 만약 겹집형 평면구조에서 근대적인 특성을 든다면 실 간 동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복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식 사택들에서 보이는 이 같은 겹집화 현상은 홑집구성을 하고 있던 우리나라 중·남부지방의 전통주택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공간 구성상의 차이는 해방 후 일식 주택에 한국인이 거주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개조행위중 개실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 4.2 설비공간의 집약화

일식 사택 건축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부엌과 욕실 변소 등의 설비공간을 묶어 집약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변소와 같은 공간은 기능적인 요구나 위생상의 문제로 별도로 두기도 하지만 부엌과 욕실만은 거의 연결시켜 구성한다. 이렇게 상관성이 높은 각 설비공간들을 집약적으로 배치한 것은 주부의 동선을 단축하여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변소와 욕실의 조합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실에 통합하여 구성하지 않고 반드시 별도의 단위공간으로 분리시킨다는 사실이다. 주택의 전체 평면에서 설비공간이 놓이는 위치는 서쪽이나 북쪽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향이 좋은 남동쪽으로 거주실을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비공간의 구성면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주택과 비교해 보면 두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나는 변소가 몸채에서 멀리 떨어져 배치되는 우리의 전통주택과는 달리 일식 주거에서는 몸채에 붙여 內室化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전통 주거공간에서는 볼 수 없는 욕실이 설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욕실은 그들의 입욕 습관으

로 인해 전통주택에서 부터 채용되어 왔던 공간이다.

#### 4.3 출입구 위치

한국 전통주택의 출입방식은 대문 - 마당 - 마루 - 방이라는 동선구조를 나타내지만 일식 주택에서는 근대기에 서양식 현관과 마루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로 - 현관 - 복도 - 방이라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외부공간에서 실내로의 출입은 현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져 내·외공간 간의 연결성은 다소 떨어지게 된다.

현관의 위치도 조사대상 주거 중 대다수가 북쪽에 위치해 있어 북쪽방향으로의 출입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5. 결 론

지금까지 일제시대 일본인 관리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로 사용되었던 일식 사택 건축의 배치·평면유형과 공간구성상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식 사택건축의 배치는 먼저 독립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고 건물과 마당(정원)의 구성형식과 진입방식에 따라, 독립형 사택은 A형, B형, C형의 세가지 유형이, 2호 연립형 사택은 D형, E형의 두가지 배치유형이 추출되었다.

- 1) A형- 대지의 중앙에 건물을 배치하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정원을 구성한 유형
- 2) B형- 대지의 북서쪽에 건물을 놓고 남동측으로 정원을 배치한 유형
- 3) C형- 대지의 북측에 건물을 배치하고 남쪽으로 정원을 구성한 유형
- 4) D형- 2호의 주거를 동서로 연립시켜 배치한 유형
- 5) E형- 2호의 주거를 남북으로 연립시켜 배치한 유형

둘째, 일식 사택건축의 평면은 근대기 일식

주택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복도의 유무와 위치, 용도 등과 같은 기능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1) 집중형- 주거공간 내에 복도를 설치하지 않고 각 실들을 연결시켜 집약적으로 배치한 유형
- 2) 중복도형
  - 공사병용형 - 한 건물내에 공적영역과 가족생활을 위한 사적영역을 분리하여 구성 하고 중복도와 정원쪽에 긴 복도를 설치한 유형
  - 주거전용형 - 가족생활공간만으로 구성 하고 각 실간의 통행을 위해 중복도를 설치한 유형
- 3) 편복도형 - 실내의 각 실을 연결하는 긴 복도를 건물의 한 단부에 배치한 유형 셋째, 일제시대 사택건축의 공간구성상의 특징은 겹집화, 설비공간의 집약화, 출입구 위치의 차별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주

- 1) 윤재웅, 대구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p61~62.
- 2) 김상희, 한국과 일본의 주택 평면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2호, 1995, p42.

## 參 考 文 獻

1. 권순엽, 대구지역의 초기 양식 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4.
2. 김상희, 한국과 일본의 주택 평면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비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권 12호, 1995. 12.
3. 김선재, 한국 근대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4. 김영태, 한국근대건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76.
5. 김정곤·김진균, 도시형 한옥의 유형분석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권 12호, 1995. 12.
6.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서양건축의 전이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0.
7. 대구부, 대구부사, 제일, 이, 삼편.
8. 대구시, 대구시사, 제일, 이, 삼권, 1973.
9. 대구직할시·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대구지역근대건축물조사보고서, 1988.
10. 대한주택공사, 주공20연사, 1979.
11. 박경옥, 일제시대 일식주택의 변용을 통해 본 주양식의 한일 비교연구, 한국주거학회지 4권 1호, 1993. 6.
12. 손세관 외, 전주시 도시형 한옥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7호, 1996. 7.
13. 윤장섭, 한국건축사론, 기문당, 1990.
14. 윤재웅, 대구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 형성과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15. 윤재웅·이철영,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일제시대 철도관사의 공간변용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논문집 제8권 제1호, 1997. 2.
16. 정모, 증개축을 통해 본 일식주거의 공간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1.
17. 철도청, 한국철도사 제2권, 1977.12.
18. 西山宛三, 日本のすまい, 勤草書房, 1976.
19. 西 和夫·穂積和夫(이무희·진경돈 譯), 日本建築史, 世進社, 1995.
20. 鈴木成文, 日本と韓國の住居の近代化過程の比較考察 - 住様式の持續と變容, 住宅建築研究所, 1987.
21. 鈴木成文, 住まいの計劃 住まいの文化, 彰國社, 1988.
22. 朝鮮建築學會編, 朝鮮と建築, 1927.